

# 조선대 치과대 개교 50주년 비전 발표

디지털 혁신 교육 시스템 도입  
사회적 약자 의료 지원 강화 등  
슬로건 공개·실천 로드맵 마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을 맞아 비전과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7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김희중·사진)에 따르면 개교 50주년 슬로건으로 'Chosun Dentistry' (조선 덴티스트리)로 정하고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조선 덴티스트리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의학 등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치의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치의학 연구원도 개편해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산학연구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치의학 연구를 선도할 방침이다. 다양한 치과 의료 봉사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중 치과대학장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구성원과 동문 모두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며 "조선대 치과대학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치의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치과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치호제, 치호인의 밤, 기념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조선대 제공>

다"고 다짐했다.

치과대학은 다양한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행사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오후 2시부터 개교 50주년 기념식으로 막이 오른다.

치과대학의 축제인 치호제도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12일에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동문과 사회각계인사가 참석하는 치호인의 밤 행사도 열린다.

13일에는 서울SC컨벤션 센터에서 '치과임상 100년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조선대 치대는 1974년에 지역 최초로 문을 열었

다. 50년 동안 배출된 35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선대 치대는 개교 초부터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을 목표로 매진한 결과 1996년에 한국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의·치학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치의학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한 결과 2023년에 실시된 한국치의학교육평가 주관의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 치대 졸업생들은 2022년과 2023년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2년 연속 100% 합격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실무·현장 중심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률 높여 청년 지역 정착 이끈다



### (2)전문대 혁신

#### 순천제일대 에너지트랙 융합전공 올 12명 포스코 등 대기업 취업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전문대학 에너지트랙 융합전공(주임교수 변항우 순천제일대·사진)이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트랙 융합전공'은 재생에너지 전력 변환 융합전공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실무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23년 순천제일대학교 창의관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랩을 운영할 수 있는 첨단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방염 필름, 방염 흡음판, 방염 암막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회의용 터치모니터와 3D 프린터, 현장 맞춤형 공구, 레이저 조각기, 인두기 등 다양한 실습 장비를 갖추게 됐다.

이같은 에너지트랙 융합전공의 성공 요인은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과 함께 학생 요구를 반영한 특강 및 견학 프로그램이 꼽힌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학생들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취업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제일대 변항우 교수는 "융합전공은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정주로 이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구 소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특히,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동향 및 기업의 과제' 특강과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결실로 2023년 대한전기학회 산업전기응용부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융합전공 참여 학생들과 교원들이 7개의 프로젝트랩 작품을 논문화하여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2024년 2월 졸업생 12명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아이스티, 포스코엠, 화산전력, 에스알이엔지 등 지역 내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면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같은 에너지트랙 융합전공의 성공 요인은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과 함께 학생 요구를 반영한 특강 및 견학 프로그램이 꼽힌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학생들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취업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제일대 변항우 교수는 "융합전공은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정주로 이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구 소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학생 끼·예술 재능 오디션 '光탈페' 열린다

1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서  
본선 진출 10개팀 경연·축하 공연  
게임·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광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에서 기량을 뽐내는 학생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제2회 학생 주도 오디션 프로그램 광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를 개최한다.

'광탈페'는 시교육청에서 학생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남대학교에서 장소를 지원했다.

올해 주제는 '열정의 날개를 펼쳐라, 세상의 한계를 넘어!'이며, ▲아외부스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오후 2시30분~4시30분) ▲'광탈페' 본선 경연 및 축하 공연(오후 5~7시) 등을 진행한다.

또 아외부스 및 체험활동으로 ▲'즐거보시랑께'(미니게임) ▲'나기보시랑께'(방탈출) ▲'맞춰보시랑께'(퀴즈) ▲'찍어보시랑께'(인생네컷), ▲'광탈페' 메인 포토존 ▲본선 입상팀 등산대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부스별로 도장을 발급해 획득 개수에 따라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참가신청 학생을 대상

으로 1차 영상 심사를 했으며, 8월 17일, 24일에 예선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선에 오른 10개 팀의 경연과 '2019 비트박스 대회 Beatbox to World'에서 1위를 차지한 'Mighty', 2017 부산 국제합창제 아카펠라 부문 1위 '보이스토이(Voice Toy)'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심사는 시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B1A4' 출신 배우 차선우 씨와 실용예술 전문 심사위원이 맡으며, 현장 투표 점수를 더해 우수팀을 선발한다.

본선 경연 우수팀 중 16명의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광탈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선 현장 투표는 공연 전까지 예매한 후 공연 시작 전 입장한 관객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탈페'가 광주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K-Culture를 대표하는 예술 인재가 발굴·지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젝트랩 첨단 공동장비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제공>

## 전남교육청 독서 인문교육 '지역 연계 탐방길 걷다' 호평

전남교육청이 10월 가을을 맞아 도내 교원 대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독서 인문예술 탐방프로그램 연수'가 호평을 얻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 독서 인문예술 탐방프로그램' 지원 연수는 오는 12일~11월 9일 보성 별곡에서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을 모티브로 한 '태백산맥문학기행'으로 이어진다. 앞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곡성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연극화한 '2024. 심정길 비밀 레시피' 공연에 100여 명의 전남 교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독서인문교육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연수는 교원들의 인문학적 사고력 함양,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기획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